

혜자 스님, 캄보디아 정부 훈장 수훈

2003년부터 양국 불교교류 활성화에 노력 인정 국가공식 의전행사 마련 ... 외국인스님으로 처음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6월 20일 캄보디아 소칸 부총리로부터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영예인 금장공로훈장을 수훈했다. 이는 2003년부터 한-캄 양국의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혜자 스님의 공로를 캄보디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다.

푸놈펜의 캄보디아 정부청사 1층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은 캄보디아 국무위원 등 5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으며, 정중수 도선사 총무국장, 장연수 총무원 문화사업단 팀장도 함께 은장공로훈장을 수훈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스님인 혜자 스님에게 국가공식 의전행사를 통해 훈장을 전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10여 곳의 현지 방송과 언론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은 6월 20일 캄보디아 소칸 부총리로부터 훈장을 수훈했다.

혜자 스님은 청사 2층 국무회의실에서 이어진 소칸 부총리와 환담에서 "불교의 세계화를 주창했던 은사 청담 스님이 1961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6회 세계불교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사친 덕분에 부처님의 나라인 캄보디아와 본격적인 교류에 나서게 됐다"며 캄보디아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기쁨보다는 어떻게 양국의 불교

문화 교류 활성화를 이룰지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소칸 부총리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들 통해 그동안 혜자 스님이 캄보디아 불교계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다"며 "도선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4명의 유학생에 기대가 크다"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부터 동행한 립삼콜 주한대사에게 "대사가 한-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립삼콜 주한대사도 "올해는 한-캄 수교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지금까지는 정치경제적 교류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 10년은 양국이 가진 우수한 불교문화를 자신으

로 사회문화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찾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혜자 스님은 2003년 앙코르 와트 유적지 복원에 동참한 것이 KBS방송을 통해 소개된 것을 시작으로, 스님이 직접 체험한 캄보디아의 문화와 유적을 소개한 <캄보디아(경문사) >를 출간 했다. 앙코르 와트가 있는 시엠립 최대 사원인 '왓 라지보' 사원에는 최신 기종의 컴퓨터 25대를 기증, '선묵컴퓨터랩'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도선사 차원에서 인건 지불을 빈민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펼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연동축제 기간동안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과 함께 캄보디아 불교체험관 등을 운영 했다.

글 · 사진/푸놈펜=조용수 기자

“경제적 어려움 아직 많아” 도움 요청

interview

캄보디아 승왕 텡봉 스님

"캄보디아와 한국의 불교계가 더 많은 교류를 펼치고 양국의 불교발전을 위해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돕겠습니다."

캄보디아 승왕(僧王) 텡봉 스님(사진은 6월 20일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예방을 받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제안했다. 푸놈펜 오나를 사원에 주석하고 있는 텡봉 스님은 캄보디아 각 불교종단의 종정 가운데서도 가장 어른으로 테라바다 불교의 'King'으로 불린다.

최근 텡봉 스님은 월드컵을 맞아 '젊은 스님들이 축구에 열광해 큰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지 말라'는 교시를 내려 해외 토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비록 자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강마른 체구지만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텡봉 스님은 한국에서 온 혜자 스님 일행을 접견실 입구부터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영접했다. 혜자 스님도 캄보디아 불교계를



대표하는 텡봉 스님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텡봉 스님은 "크메르루 주 정권이 지난 1979년 이후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캄보디아 불교계의 현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하고 "세계각국의 도움이 있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캄보디아에는 불우한 이들이 많다"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캄보디아 불교의 오늘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부처님의 나라다.

캄보디아의 불교는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캄보디아인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절에서 스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한다. 대부분 사원은 종교시설이면서 교육시설을 겸하고 있어 유아기를 지나면 사찰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공부한다.

특히 남자들은 남방불교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 일정기간동안 출가수행을 거친다. 결혼식에도 스님들을 초청해 공양하고 늙으면 절에서 생활한다. 사후에는 절 마당의 유골탑에 안장된다. 캄보디아인들은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모두 불교라는 울타리에서 함께한다.

7-8세기 스리랑카에서 유입된 캄보디아의 불교는 소승불교적 성격을 띠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2세기 크메르제국을 자아바르만 7세가 대승불교를 국가통치의 이념으로 도

국민 95% 불자

최근 한국기독교 침투 교세확장에 혈안

입하면서 캄보디아의 불교를 크게 꽃피웠다. 그러나 1295년 인도라바르만 3세가 집권하면서 테라바다 불교가 캄보디아 불교의 주류를 이룬다. 1975-1979년 크메르루 주 정권이 모든 사찰을 해체하고 수많은 스님들을 탄압했다. 이 시기 살아남은 스님은 겨우 2000명 남짓이었다.

짧은 내전으로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면서 90년대 이후 UN의 감독아래 훈센 정부는 경제 성장과 정치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젊은 국가 재건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2006년 현재 수많은 사원이 복구되고 과거 절대적이었던 불교의 사회적 지위도 회복되고 있다. 현재 6만6000명의 스님이 전국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다.

끊이지 않은 분쟁으로 경제적 기반이 거의 사라진 캄보디아는 전 세계 NGO들의 도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보호아래 활동하고 있는 NGO 가운데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한국 교민 약 800여명이 진출해 있으며 이 가운데 1/3이 선교사일 정도. 이들은 불교국가인 캄보디아 내 기독교 교세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보장되는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 선교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원조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나 불교계는 이들을 통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말레이시아, 사이버 승려 단속

말레이시아를 자주 방문하면서 그곳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그곳에 2년 가까이 근무하던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의 달라진 모습을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말레이시아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담마난다 스님의 저서 두 권을 번역, 출판한 인연이 있으니 여행 틈틈이 그곳 불교의 흐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된다.

지난 3월, 이 난을 통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기도 하였지만 말레이시아에도 '새로운 불교 바람'이 불고 있다. 식자층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무슬림을 비롯한 타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눈'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나무아미타불'을 새긴 스티커를 앞뒤 창문에 붙

(Tan Chai Ho)가 직접 나서, "외국에서 와서 불법적으로 보시를 요구하고 불교의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사이버 승려들을 강력 단속하여 구금, 추방하라"는 지시를 전국 경찰과 이민국에 내렸다.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사이버 승려들은 사람들의 운수를 점쳐주고, 복권 번호를 예측해주거나 심지어 지방 신문에 광고까지 낼 정도로 대담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언론에 대하여도 이들 사이버 승려들에게 광고지면을 할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사이버 승려를 단속, 추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조치이다. 그곳에서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은, '사이비 승려(似僧)'와 '진짜 스님(眞僧)'을 구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스님들이 평소 수

삭발하고 승복 입은채 도시 곳곳서 구걸 정부 협조 요청에 불교계 자율규제 노력

인 승용차가 많아진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이다. 불자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긍정적 변화로 들어온다.

그런데 세상만사가 그러하듯이, 밝은 뒤에는 어두움 이 그리고 '공정 뒤에는 부정'이 뒤따르게 되는 모양이다. 삭발하고 승복을 입은 채 구걸을 하는 중국계 사이버 승려들을 도시 곳곳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도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길가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보살"이나 "아미타불" 상을 인쇄하여 코팅한 명함 정도 크기의 물건을 건네며 보시를 요구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이들에게서 '승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지난 두 달 동안은 이들이 서울의 조계사 근처에도 나타나 똑 같은 구걸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본 적도 있다. 하긴 이들에게 한국보다 더 좋은 사업 조건(?)을 갖춘 나라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들이 단순히 보시를 요구하거나 구걸 행각으로만 끝을 맺으면 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일간지 '베르나마(Bernama)'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인 탄차이호

행자의 위엄(威嚴)을 갖추어 불자들뿐 아니라 타 종교 신도에게서까지 존경을 받는 곳에서는 '사이비 승려'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도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자율 규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배경도 한 몫 작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진승'과 '가짜, 사이비 승려'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신심 있는 신도들은 "부처님께 보시를 보살"이나 "아미타불" 상을 인쇄하여 코팅한 명함 정도 크기의 물건을 건네며 보시를 요구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이들에게서 '승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각 종단에서도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출가를 받아들이고 '계를 위반한'들에 대한 징계가 없다 보니,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나서서 이들을 단속할 생각인들 낼 수 있겠는가. '사이비 승려' 단속에 나서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불교계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우리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용문사 윤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탱 및 목각행(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동불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소시는 길

버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차용): ① 증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증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합창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용문사 전방방행(5분 소요)

명봉사 40분소요

부석사 30분소요

청량사 40분소요

봉정사 40분소요

대승사 10분소요

김용사 30분소요

용문사 50분소요

• 용문사에서 5분거리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행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